

# 파국적제앙을 불러오는 위협한 발상

최근 미국과 남조선군부가 우주분야에서의 군사적협력 강화를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남조선군부는 2017년에 체결한 《우주분야실무협약의제정》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우주분야에서의 정책 및 정보공유, 인적 교류, 기술협력문제를 고위급에서 취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한다.

한편 미군은 우주군병력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남조선군과 우주에서의 공동 군사작전수행절차를 숙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군사위성을 리용한 우주기반공군 타격체계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놀음도 벌여놓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이것은 미국이 저들이 내밀고있는 우주기반미사일방위체계구축에 남조선의 깊숙이 끌어들이려 종속시키려는 목적으로부터 출

발한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고 한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불리우고있는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남조선군부가 벌여 놓고있는 우주분야에서의 군사적협력강화책동은 그것이 불아을 위한 후과로 하여 남조선민심의 강한 경계와 배척에 부닥치고 있다.

알려지다싶이 미국이 구축하고있는 우주기반미사일방위체계는 세계 임의의 지역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들을 군사위성들을 리용하여 탐지, 추적하고 군사위성에 장착된 레이자무기 및 요격미사일들로 우주공간에서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체계수립을 위해 미국은 저들이 《적성국가》들로 보는 동북아시아지역의 나라들에 미사일공격을 가할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간주되고있는 남

조선 여기에 끌어들이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하고 있다.

만일 남조선이 미국의 우주기반미사일방위체계에 가담하게 된다면 어떤 재난적 후과가 빚어지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치 및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에 가담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남조선은 《(적성국가)들의 선제타격추진목표로 될 것이다》, 《의도하지 않는 전쟁에 말려들어 조선반도에 파국적제앙을 불러올 것이다》고 분석하며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벌리고있는 우주분야에서의 위험한 군사적협력을 남조선 각계층이 강력히 규탄배격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본사기자 배영일



◇ 남조선언론들이 주장 ◇

최근 남조선언론들속에서 남조선기업들이 미국과의 경제 적밀착을 강화할수록 대미에 속이 심화되고 민생이 악화되고있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 오고있다고 한다.

《매일경제》, 《노컷뉴스》를 비롯한 언론들은 삼성, SK 등 대기업들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금액이 천문학적으로 달한다고 하면서 《당국의 외교기조가 안보도 경제도 미국에 의존하는것으로 바뀌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청년실업대란이 벌어지는 판에 몇만 개가 되는 일자리가 미국으로 가고있다》, 《벌써부터 그 후과가 눈에 드러나고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속에서는 대미투자를 늘이는 등 미국과의 경제 적밀착강화가 오히려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예측되고 막대한 현세만 섬겨버리는 꼴로 이어지고있다》, 《일자리부족 등 민생악화가 보다 심화되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언행불일치》

얼마전 남조선 국방부가 《2022-2026국방중기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의 《민플러스》, 《쿠키뉴스》, 《그래픽뉴스》, 《프레시안》 등은 국방부가 레전부터 5년간 추진할 전력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각종 미사일들과 신형무기들의 개발도입, 중형잠수함의 확보, 《C-130H》수송기의 성능개량과 공중집중용 대형정기기를 추가구입, 조선반도전역을 감시할수 있는 정찰수단들을 갖추는 문제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무력중장기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4.5% 더 늘였으며 앞으로 5년간 막대한 자금을 지출할것을 계획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은 《(립체기동작전) 관련예산이 대폭 늘었다. 군비증강이 절정에 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번 계획이 북측지역의 핵심대상들에 대한 정밀타격 등 공격능력을 강화하는데 기본초점을 두었다고 평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국방비를 동결하거나 줄여서 자영

업과 보건, 의료분야지원에 사용했다면 생존의 벼랑끝에서 고통받고있는 많은이들에게 생명의 다리 몇개는 놓을수 있었기에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하면서 《정부가 앞에서는 (단계적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해놓고 실제로는 사상 최대규모의 군비증강을 해온 (언행불일치)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언론들은 현 당국의 《대화》와 《평화》라 하는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있다.

우선 여야당 누구나 할것없이 구대정치를 답습하고있

기때문이라는 것이다.

여당이 초기에 내걸었던 《적폐 청산》은 야당의 《신적폐》물이에 밀려 옛말로 되어버리고 저저마다 《변화와 혁신》을 운운하지

구대정치에 대한 환멸과 함께 《대선》 후보들중에 기대를 걸만한 인물이 없다는것도 《무당층》 확대의 원인이 라고 한다.

실제로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전 검찰총장, 전 감사원장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말과 행동이 경솔하고 실책만 범하는것으로 하여 도리머리를 짓게 되고 지어내 잘 한다 하고 돌아서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민생은 뭐가 되고 정치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만 정쟁에 몰두하면서 정치 적과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평이다.

여당은 《적폐》를 쌓아나 개혁정책들을 내밀고 야당은 건건이 걸어제는데만 급급한다.

그러나 민생은 뭐가 되고 정치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구대정치에 대한 환멸과 함께 《대선》 후보들중에 기대를 걸만한 인물이 없다는것도 《무당층》 확대의 원인이 라고 한다.

실제로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전 검찰총장, 전 감사원장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말과 행동이 경솔하고 실책만 범하는것으로 하여 도리머리를 짓게 되고 지어내 잘 한다 하고 돌아서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민생은 뭐가 되고 정치란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니가 오뉴월로만 여기면서 부지런히 여기저기 돌아치며 저들의 후보들과 그들의 저품 같은 《공약》들을 광고하기에 분주하다.

구대라는 흉탕물에서 미꾸라지밖에 더 나올수 없는것 처럼 새 정치,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무당층》이 더욱 늘어나는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 《무당층》을 길어내 돌부처로 여기면 안되는 것이다.

정치적 무관심, 정치에 대한 환멸을 품고있어도 사이

비정객들이 노는 꼴을 똑똑히 새기고 철저히 계산하는것이 민심인 것이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도 《대선》의 승패는 《무당층》을 누가 더 많이 끌어당기는가에 좌우될것이라고 하면서 민심정찰이 더욱 치열해질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누가 남조선인민들을 《무당층》으로 떠밀었는가.

다음아닌 정치를 한다는 것들 자체가 민심으로부터 배려되고 물우의 기름처럼 민심에 옷물면서 저들만의 정치, 저들만의 야망 실현에 헤뭇비기때문인 것이다.

신성일

# 민심의 비난을 받는 역적당

## 결만 번지르르한 《공약》

남조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저저마다 《공약》 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한다.

그 무슨 《신한반도프로세스》, 《신북지정책》, 《신구주력공공》 등 새로운 정책들을 런이 쏟아내는데 귀가 멍멍할 정도라고 한다.

여기서도 하여 뒤지지 않는다. 그들도 《신진국시대달성》, 《공정과 상생회복》 등의 선거주호를 내밀고 민심을 유혹하는가 하면 《정책발표회》를 연다 어찌나 하며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하지만 민 달구지소리보다 더 요란한 번이다.

《국민의힘》이 민생과 경제문제를 해결할것처럼 너스레를 떠는것은 한갓 기만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 민생과 경제파란은 비로소 오늘에 와서 제기된 문제 아니며 또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 등 사회

생활의 각 분야에 걸쳐 외세에 철저히 종속되어있는 남조선사회의 예측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어온 구조적문제로서 그 주되는 책임은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에 있다.

외세의 비호밑에 수십년간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권력대로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대가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막대한 치부를 한것이 고 반인민적악정으로 빈부격차를 증대시킨것뿐이다.

집권기간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생을 파탄시키고 인민들을 도란에 빠뜨린 장본인이 다름아닌 《국민의힘》의 조상들이라는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지금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그로 인한 경제침체로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처지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생은 아랑곳없이 권력야망

에만 열이 떠있으니 녀름에는 마음이 없고 재발에만 눈이 간다는 적이 아니겠는가.

남조선의 한 언론은 얼마전 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정책발표회》를 두고 《주자들간 열면 료쟁은 사라지고 (맹탕발표회)가 되고말았다. 여기에 후보라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줄거나 휴대전화와 보고 연신 눈물을 흘리는 등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삼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사람들속에서는 (이런 발표회를 하는 이유가 대체 뭘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나왔다》고 비난하였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국민의힘》이 들고나오는 《공약》들에 대해 《속된 민두》, 《빛좋은 개살구》, 《대통령선거에서 리득을 보려는 대결공약》, 《대의적고립만을 자초하는 외세의존공약》이라고 비난하면서 침을 뱉고있다.

본사기자 한복순

## 고질적인 개싸움질, 만연된 부패

##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남조선의 보수언론과 정치전문가들속에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집권하기 불가능하다는 맥빠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와 보수패들을 실망시키고있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정권교체 민심 식어간다》는 제목의 글에서 4월이후 주민들속에서 《정권교체》관심물이 크게 감소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내에서 대선후보경선구정을 둘러싼 치열한 박그릇싸움에 염증을 느낀 민심은 식어가고있다.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을 원하는 답변자의 격차가 4.7%포인트까지 떨어졌다. 특히 중도층이 정권교체에 시들해졌으므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세살찌 버릇 여든

까지 간다고 고질적인 악습인 개싸움과 하루가 멀다하게 일어나고있는 부정부패의혹들, 사회물질을 너무나도 모르는 어이없는 발언 등 각종 추문들이 런이 러져나오면서 현재 물두하고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혐오감이 더욱 높아지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구정을 놓고 사퇴해야 한다는, 사과해야 한다는 손가락질하며 나전투기를 벌려온 전 검찰총장 윤석열과 《국민의힘》 대표 리준석의 추태는 민심은 물론 《국민의힘》내부와 보수층속에서도 국도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다음기 《대통령》 선거후보 추진문제를 둘러싼 아귀다툼으로 《국민의힘》이 심각한 대립과 갈등의 수렁속에 빠져들고있다.

당내경선을 앞두고 《역선택조항》 도입이 물두고 벌어진 후보들사이의 개싸움은 두고두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주민여론조사에 《역선택》을 방지할 경우 여론지지자들이 의도적으로 《위문 경쟁상태》를 찍어 선거를 망쳐놓을것이라고 주장하며 《도입》을 요구하였다.

반면 홍준표, 류승민, 하태경 등은 그렇게 되면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낼수 없다고 이를 결사반대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역선택》이라는 용어자체가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역선택》을 내세워 반쪽정권을 하자고 하는 시도는 어떤 형태로도 백책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장을 압박해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후보가 불과 며칠전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겠다고 해놓고 오늘에 와서는 대리인을 내세워 (역선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며 윤석열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선택조항》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간의 대립이 증폭해졌지만 경선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언제든 재현될수 있다는것이 정치 분석가들의 평이다.

남조선의 한 언론이 《최종후보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도입하기로 한 (본선경쟁력)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새로운 갈등의 화점이 될수 있다》고 평한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속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의 선거개입의혹이 폭로되어 당내부가 벌등지 싸움은 풀이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여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명백한 권력남용범죄,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맹공격을 들어대고 홍준표, 류승민을 비롯한 같은 당의 후보들까지 이따다 하고 윤석열을 최악의 후보, 검찰권력을 사유화한 《헌법》유린범죄자로 몰아대며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목청을 높이고있다.

한편 《국민의힘》내에서 전 검찰총장 윤석열과 전 감사원 원장 최재형의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있는 반면에 홍준표, 류승민 등이 어느 정도 득세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들사이에서 서로 물고뜯는 개싸움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있다고 한다.

얼마전에도 이들은 서로를 《적폐검사》, 《배신자》라고 공격하며 서로 물고뜯었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언론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사이의 힘겨루기가 갈수록 《절망적》으로 되고있다고 야유하였는가.

거기에서 부동산투기범죄에 연루된 12명의 당수속의원들의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더우기 《국민의힘》 대표의 아버지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표를 비호 두드리는 과와 반대파사이의 극단한 감정싸움까지 벌어져 《국민의힘》내부는 말그대로 제개비네 집안이 되었다.

지금 《국민의힘》은 남조선의 각계층으로부터 부동산범죄집단, 부패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궁지에 몰리고있다.

지금 나타난 현상만으로도 《국민의힘》은 들쭉날쭉 앙취공기는 부패시정, 권력형탈에 눈이 먼 정치시정배들의 무리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정일혁

나라들의 의견 같은것은 들을넘조차 안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정부의 행태는 과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라민족의 피로 배를 불리던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대로 현상시게 하고있다.

지난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불평과 고물 등의 력사는 오늘날도 잊지 않은 상처로 생생히 남아있다. 이런 일본이 오늘날에는 방사능오염수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로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등 수질오염을 달하는 방사성물질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것들은 다핵종 제거설비를 리용하여 없애고 하여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며 방사성물질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고 한다. 현재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량은 무려 127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일본이 이처럼 방대한 량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처리하는 경우 그 피해가 자국민들 물론 남조선과 주변 나라들에 고스란히 돌아 가게 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하기에 이미전부터 태평양연안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일본의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방류시도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엄청난 도전으로 규탄하면서 이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백수침만에 달하는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것을 보면 일본이 애당초 주변

나라들의 의견 같은것은 들을넘조차 안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정부의 행태는 과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라민족의 피로 배를 불리던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대로 현상시게 하고있다.

지난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불평과 고물 등의 력사는 오늘날도 잊지 않은 상처로 생생히 남아있다. 이런 일본이 오늘날에는 방사능오염수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로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등 수질오염을 달하는 방사성물질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것들은 다핵종 제거설비를 리용하여 없애고 하여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며 방사성물질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고 한다. 현재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량은 무려 127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일본이 이처럼 방대한 량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처리하는 경우 그 피해가 자국민들 물론 남조선과 주변 나라들에 고스란히 돌아 가게 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하기에 이미전부터 태평양연안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일본의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방류시도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엄청난 도전으로 규탄하면서 이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백수침만에 달하는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것을 보면 일본이 애당초 주변

나라들의 의견 같은것은 들을넘조차 안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정부의 행태는 과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라민족의 피로 배를 불리던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대로 현상시게 하고있다.

지난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불평과 고물 등의 력사는 오늘날도 잊지 않은 상처로 생생히 남아있다. 이런 일본이 오늘날에는 방사능오염수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로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등 수질오염을 달하는 방사성물질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것들은 다핵종 제거설비를 리용하여 없애고 하여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며 방사성물질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고 한다. 현재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량은 무려 127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일본이 이처럼 방대한 량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처리하는 경우 그 피해가 자국민들 물론 남조선과 주변 나라들에 고스란히 돌아 가게 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하기에 이미전부터 태평양연안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일본의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방류시도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엄청난 도전으로 규탄하면서 이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백수침만에 달하는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것을 보면 일본이 애당초 주변

나라들의 의견 같은것은 들을넘조차 안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정부의 행태는 과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라민족의 피로 배를 불리던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대로 현상시게 하고있다.

지난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불평과 고물 등의 력사는 오늘날도 잊지 않은 상처로 생생히 남아있다. 이런 일본이 오늘날에는 방사능오염수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로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등 수질오염을 달하는 방사성물질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것들은 다핵종 제거설비를 리용하여 없애고 하여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며 방사성물질은 계속 남아있게 된다 고 한다. 현재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량은 무려 127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만약 일본이 이처럼 방대한 량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처리하는 경우 그 피해가 자국민들 물론 남조선과 주변 나라들에 고스란히 돌아 가게 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하기에 이미전부터 태평양연안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일본의 후우시마원자력발전소 오염수방류시도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엄청난 도전으로 규탄하면서 이를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백수침만에 달하는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것을 보면 일본이 애당초 주변

